

전문대학생을 위한 학습태도검사

Developing of Learning Attitude Examination Tool for Vocational College Students

김정선*, 이형수**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광주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Jeong-Sun Kim(lordlove@ghu.ac.kr)*, Hyoung-Soo Lee(hslee@ghu.ac.kr)**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기초적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습전략과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는 전단계로서 교수학습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태도검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문대학 신입생 984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습태도검사 33문항이 선정되었는데, 다섯 가지 요인으로 명명된 효과적인 내용정리,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목표 설정과 실행, 학습계획은 서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53~.72)를 보이며 특히 학과적성에 긍정적인 학생일수록 다섯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섯 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교수학습방법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학습태도 | 학습동기 | 학습습관 | 학습계획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basic learning ability of vocational college students and to develop the examination of learning attitude. This examination can be used at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as a previous step to find the strategy and effectiveness of learning. The examination of learning attitude which consisted of 33 questions was surveyed by 984 college freshmen. The survey revealed that five factors; effective content arrangement, priority and self-management, Check and improve of study habits, goal setting and implementation, learning plans have high interrelation(.53~.72). Especially, the more positive aptitude for their majors students had, the higher score they achieved in those five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five factors. Therefore, if it is considered to run a differentiat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dividually, it is expected to be more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 keyword : | Learning Attitude | Learning Motivation | Study Habits | Learning Plans |

* 이 논문은 2013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3-008).

접수일자 : 2014년 08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0월 01일

수정일자 : 2014년 09월 25일

교신저자 : 이형수, e-mail : hslee@ghu.ac.kr

I. 서론

최근의 대학교육 현장에서 취업을 위한 대학선택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대학 지원이 증가 추세인 반면, 대학 입학정원수가 고등학생수보다 증가하여 대학 수험능력이 미약한 채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고난이도의 전공과목에서 학습부진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1].

전문대학생의 학습능력이 대체로 낮아지고 있다는 많은 교수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일반 대학생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학습을 지도하다보면 총명한 학생들이 종종 있어서, 학습능력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섞여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단지 입시준비가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자기적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차선책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므로[2], 일반대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본다.

전문대학의 신입생들의 기초적 학습능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여기는 교수자들이 많은데, 매년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체계적인 학습 조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 전문대학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자유를 부여하므로, 대학생 개인으로는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과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필요로 한다. 학습을 위한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학습성취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학생의 학습전략에 대한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대학생 각각의 학습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1][4]. 또한, 대학생들이 이미 충분히 습득·활용하고 있는 학습기술의 하위요인이 무엇인지, 어떤 학습기술 훈련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5].

일반대학생의 학습기술측정에 대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4], 여러 전문대학 교수학습센터도 자체 제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에 출판된 학습진단 또는 측정도구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대학생을 위한 학습에 필요한 요인

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학습진단도구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II. 학습태도검사 구안

학습태도검사와 관련하여 Gustafsson[6]은 학습자들의 학교, 교사, 학습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문항에 대한 반응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학교학습에 대한 의의가 있는 5개 요인으로 ‘학교요인, 교사요인, 교우와의 관계요인, 학급규율요인, 분위기’를 추출했다. 변호승 외[7]은 수업태도, 공부시간, 교과태도의 세가지 변인으로 학습태도를 구성하였고, 김기석[8]은 학습태도에 대한 하위요인을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출간된 학습전략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니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의 질을 관리하는 주도적 학습을 많이 다루고 있어[9] 자기주도학습이나 학습습관의 조절을 도와주기 위한[10-12] 상담이나 학습코칭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태도검사 항목을 구안하였다[13].

1. 초인지적 통제 활동

김[14]은 초인지적 통제를 사용하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능동적 점검(monitoring)은 목표설정, 예상문제 만들기, 과제 분석하기의 계획 활동단계와 수행중인 인지적 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계속적인 자기점검의 점검 활동단계, 그리고 점검활동에 근거하여 과제에 보다 적절하게 행위를 변화시키는 자기조정단계의 3단계를 포함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자기주도학습법

김[9]은 자기주도학습에 대해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목표를 조절하며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방법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학습법 개발적용에 앞서 학습태도 검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기주도학습이 교사주도의 전통학습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 독

자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효율적인 지식습득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15]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4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거의 형성되지 않은 단계로서 학생은 선생님이 알려주기만을 기다리는 단계이다. 2단계는 다소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서 목표설정이 이루어지면 공부할 수 있는 단계이고, 3단계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해진 단계로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려 하지만 자신감과 집념이 필요한 단계이며, 4단계는 제대로 된 자기주도학습 단계로서 스스로 공부하며 자기생활을 조절하고, 선생님은 정신적 조연자의 역할을 하는 단계로 나누었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는 학업성적 상위 집단이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9],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훈련받은 집단에서 학습습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16], 학습태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성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학습코칭

이[17]의 코칭변화 모델 4가지와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자아실현 욕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4. 학습태도

일반적으로 태도란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든 일관성있게 보여주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학습태도는 “학습자 개인의 내적, 외적 상황에 따라 학습자가 일관성있게 반응하며 선택하여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긍정적인 학습태도와 자기주도하에 학습문제를 해결해가는 학습태도[9]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코칭변화 모델

인코칭의 변화 모델	
코칭 니즈 파악	피코치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변화 목표점을 발견하는 단계
잠재력 행동화	변화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는 단계
행동의 습관화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행동을 발견하고 체득하여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계
셀프 코칭	한 분야에서 경험한 변화의 방법론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단계

표 2. Maslow 욕구단계이론

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	
생리적인 욕구	음식, 물, 공기, 주거에 대한 욕구 욕구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안전 욕구	안전, 안전성에 대한 욕구와 고통, 위협, 사고와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소속 욕구	우정과 사랑, 인정, 사회적소속감에 관한 욕구
존경 욕구	개인의 성취감, 자기가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및 존중
자아실현 욕구	자신의 능력 및 잠재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

5. 학습동기

김[18]은 공부방법과 의욕은 어느 쪽도 없어서는 안 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으므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때 그 의욕은 매우 강해진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자신의 역할모델로 삼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학습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경우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와 관심 있는 공부는 저절로 하게 된다. 예로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학생이 미술공부를 잘하게 되는 경우이다. 둘째, 공부의 결과와 보상을 바라는 경우는 성적이 오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 강화로 보상받는 것이다. 예로서 칭찬, 우월감, 상품, 시험합격 또는 자격증을 들 수 있다. 셋째,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시간을 잘 사용하는데 대한 보람, 몰입의 즐거움, 학업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 등이 학습동기 유발 요인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박[19]은 학습동기에 관련하여 외적 동기로 학습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강화와 보상을 제시하고, 내적 동기로 학습과정에서 느끼는 학습자의 본능적인 즐거움을 설명하였는데, 인간은 외적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도적 존재라고 보았다. 또한, 백[20]은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6. 하위영역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젊은 연령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제외하여 항목을 정하였다[11].

6.1 효과적인 내용정리

전[21]은 필기전략의 중요성과 자기효능감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필기하게 하면 훨씬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을 노트에 정리하면 수업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집중력이 향상되어 기억을 돕는다고 하였다. 또한, 마인드맵을 이용한 노트필기를 할 경우 긍정적인 창조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22].

6.2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중요도와 긴급정도를 고려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당장 급하진 않아도 중요한 일이 빠지지 않게 한다. 또한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하루 스케줄은 전날 밤에 세우고, 수첩, 휴대폰, 컴퓨터의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열정이 많은 청년에는 자칫 목표를 잃고 방황할 수 있지만,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학습방법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하려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23].

6.3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고[10] 등은 첫째, 학생의 공부습관변화는 단기적인 성과를 높이기보다 장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하고, 둘째, 공부습관의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꿈과 목표의 설정을 통해 병행되어야 하며, 셋째, 학습자의 코드에 맞는 공부감성이 습관개선을 도와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6.4 목표설정과 실행

김[9]은 자기조절학습은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목표를 조절하며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방법이라 정의

하였다. 또한 학습법 개발적용에 앞서 학습태도 검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23]은 정한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몇 번씩 적어보는 것은 목표의식을 높여주고 하나로 모아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입력시켜 뇌가 전력을 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학생에 비해 도전적으로 공부를 하며 오랫동안 지속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부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도전과 성공의 체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6.5 학습계획

자신의 학습량을 고려해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자투리시간을 이용해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공부할지 메모하여 실천하고 일과를 점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 학기 학사력을 만들어 중요한 일정들을 표로 그려보아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단기 계획표는 학습과 휴식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게 작성하여야 한다.

학습 플래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정적인 시간을 먼저 기록한 후 일상생활의 식사, 수면시간을 적어놓고 과목별로 복습시간을 확보해 두고 여가시간과 자기를 위한 보상을 포함시켜 예습시간도 계획하여야 한다[11].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와 대상

본 연구는 보건계열 전문대학교 학생들의 학습태도 진단을 위한 내용 및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학습태도 진단도구를 개발 하였다.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2개의 평가그룹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도구의 표적

집단인 10명의 보건계열 재학생과 두 번째 그룹은 도구 개발 집단인 보건계열과 교육학 전공 교수 3인으로 총 13명의 평가집단에게 각 문항에 대한 명확성, 용어의 이해 용이성,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타당도 정도는 중간 점수로의 편중을 막기 위해 4점 척도로 매우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타당하지 않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로 내용타당도 계수(Index of Content Validity: CVI)를 산출하여 내용 타당도 계수가 .80 이상인 40문항을 채택하였다. 이후 40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1차 자료수집은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이었으며, 대상은 보건계열 재학생 1~2학년 200명이었다. 수집된 200부의 자료를 가지고 실시한 1차 예비검사를 통해 40문항이 33문항으로 걸러지게 되었다. 직각회전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량과 문항 간 상관계수가 작거나, 또한 원래의 집단에서 이탈한 7개 문항의 항목을 제외한 결과 33문항을 선정하였다.

추가된 2차 자료수집은 1차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건계열 전문대학생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9월에 실시하였고, 이에 총 1033명 중 무응답 항목이 많은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9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의 측정도구의 개발 시 효과적인 내용정리는 진[21]과 토니부잔[22]의 측정 검사에서, 우선순위와 자기관리는 김[24]의 ‘학업동기검사’에서,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은 고[10]와 이[17]의 측정 검사에서, 목표설정과 실행은 김[9]과 정[23]의 측정 검사에서, 학습계획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학습전략’[11]과 ‘공부잘하고 싶으면 학원부터 그만뒀라’[15]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WIN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상황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도구의 구성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각 문항별로 탐색과정을 거쳐 이상값의 존재유무, 정상성, 선형성, 다중공선성 및 특이성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Bar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여 변수간 상관이 요인분석을 할 만큼 적절한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탐색적 요인추출을 목적으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가장 일반적인 회전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시범적인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인 수는 고유값이 1.0 이상인 5개의 하위요인으로 축소되었다. 요인 구성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위해서 요인 공유값(communality)과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를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검정은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와 요인별 신뢰도를 각각 산출하였다. 학습태도 척도의 측정변인 이론변인을 잘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평균의 차이는 t-검증과 oneway-ANOVA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644명으로 65.9%를 차지하였고, 남자가 333명으로 34.1%에 불과하였다. 연령으로는 20세 미만이 663명으로 67.9%로 가장 많았고, 21~30세가 293명(30%), 31세 이상이 20명(2%)을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941명(96.3%)이 미혼이었고, 36명(3.7%)이 기혼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866명(88%)이었고, 2학년이 118명(12%)을 차지하였다. 학과의 적성으로는 ‘보통이다’가 418명(42.8%)이었고, ‘맞는 편이다’가 378명(38.7%), ‘매우 맞다’가 80명(8.2%), ‘맞지 않다’와 ‘매우 맞지 않다’가 각각 75명(7.7%), 26명(2.7%)이었다.

표 3. 일반적 특성 (N = 984)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자	333명(34.1%)
	여자	644명(65.9%)
연령	20세 미만	663명(67.9%)
	21~30세	293명(30.0%)
	31세 이상	20명(2.0%)
결혼	미혼	941명(96.3%)
	기혼	36명(3.7%)
학년	1학년	866명(88.0%)
	2학년	118명(12.0%)
학과적성	매우 맞지 않다	26명(2.7%)
	맞지 않다	75명(7.7%)
	보통이다	418명(42.8%)
	맞다	378명(38.7%)
	매우 맞다	80명(8.2%)

2. 구성 타당도의 검증

2.1 요인분석의 해석

구성타당도의 검증방법으로는 공통변량, 특수변량 및 오차변량의 합으로 구성된 전체변량을 사용하여 변량을 극대화하는 성분(components)을 추출하는 방법인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인 공통성(communality)과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명확한 준거가 되는 Kaiser-Meyer-Olkin(KMO) 측정치와 Barlett의 구형성검증, 개별 변인의 표본 적절성을 의미하는 MSA값을 평가하였다. KMO는 .95로 Kaiser가 제시한 준거에 따라 보통 이상의 적절성을 보였으며, Barlett의 구형성검정치는 16345.81 ($p < .001$) 으로 '상관행렬이 0이다'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표본변인간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할 만큼 적절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었다.

2.2 요인의 추출 및 명명

[표 4]를 보면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Eigen값 1.0 이상인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402~.777의 범위에 있었다. 총 누적 설명변량을 확인한 결과 52.76%였고, 요인 1은 12.43%, 요인 2는 11.41%, 요인 3이 10.40%, 요인 4가 10.01%, 요인 5가 8.51%의 설명변량을 나타내었다. 추출된 5개 요인의 명명은 '효과적인 내용정리',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목표설정과 실행', '학습계획'이라고 명명하였다. 명칭은 각 요인마다 높게 부하된 순서의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공통된 내용을 내포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 신뢰도의 검증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관성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에 대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Cronbach's α 로 살펴본 결과 요인 1은 .84, 요인 2는 .85, 요인 3은 .78, 요인 4는 .82, 요인 5는 .77이었으며 이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4. 확인적 요인분석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후 각 요인별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확인요인분석은 특정 구성 개념이 임의의 측정문항을 잘 설명한다는 특정 가설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는 사전지식이나 이론적으로 입증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제거하거나 상관관계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확인요인분석에서 평가개념인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0.9이상), 조정 적합도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0.9이상), 표준 적합도지수(normed fit index: NFI, 0.9이상), 비표준 적합도지수(non-normed fit index: NFI, 0.9이상), 비교 적합도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0.9이상), 원소간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평균 제곱 잔차 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05 ~ .08이하), χ^2 통계량, χ^2 에 대한 p-값(0.05이상)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4. 요인행렬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21. 학습한 내용은 나만의 방식대로 정리해둔다.	.670	.232	-.029	.118	.172
6. 공부한 내용이 복잡할 때는 요약하거나 이미지화 해본다.	.650	.037	.074	.092	.199
13. 학습할 때 주요내용을 따로 정리해둔다.	.619	.125	-.011	.169	.389
22.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하는 편이다.	.549	.257	.176	.178	.073
24. 나만의 학습습관을 갖고 자신감 있게 학습하고 있다.	.513	.298	.323	.187	.139
8. 나는 학습법을 더 효과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509	.016	.460	.207	.226
23. 예전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법을 배워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506	.271	.409	.194	.016
33. 나만의 특별한 메모방법을 갖고 있다.	.496	.317	.092	.234	-.005
16. 좋은 학습방법을 배워 효과적이면 완전할 때까지 꾸준히 반복한다.	.404	.318	.209	.112	.231
35. 시험이 다가와도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한다.	.209	.628	.132	.270	.308
36. 기말시험을 준비할 때, 반복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계획한다.	.225	.610	.133	.212	.351
28. 여가 시간과 공부시간을 적절히 배정한다.	.185	.600	.278	.018	.197
29. 학습도중 친구가 놀자는 연락이 와도 계속 학습에 열중한다.	.075	.576	.293	.077	.130
30. 학습하고자 마음 먹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편이다.	.289	.499	.190	.204	.127
34. 주변에서 좋은 자료를 발견하면 스크랩해두고 활용한다.	.433	.465	.021	.219	.037
37. 시험에서 틀린 문제는 항상 다시 확인하고 틀린 이유를 생각해본다.	.198	.464	.398	.102	.138
14. TV나 컴퓨터 오락을 하고 싶어도 계획한 공부를 먼저 한다.	.127	.424	.336	.229	.215
31. 나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328	.402	.248	.391	-.074
5. 수업을 받기 전에 예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18	.203	.731	.074	.190
15. 학습법을 주기적으로 배우고, 학습습관을 점검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	.059	.266	.650	.101	-.100
20. 매일 수업계획에 따른 목표를 두고 예습한다.	.024	.374	.643	.064	.138
7. 나는 학습 습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다.	.441	.076	.511	.222	.234
10. 토론을 잘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	.239	.071	.451	.270	.271
9. 시험이 끝나고 시험기간 동안의 개선점을 찾아 다음시험을 대비한다.	.372	.056	.441	.204	.312
1. 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150	.074	.143	.777	.181
2. 나는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하며 실행해 나간다.	.174	.148	.192	.774	.229
40. 나는 미래를 위해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살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88	.342	-.005	.605	.042
3. 그동안 배운 지식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학습한다.	.331	.006	.150	.588	.318
39. 나의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인생계획표가 있다.	.165	.335	.209	.583	.061
11. 나는 학습목표량을 미리 정하여 학습한다	.253	.188	.112	.092	.714
12. 미리 계획된 시간대로 학습한다.	.127	.306	.246	.088	.703
4. 미리 계획된 순서대로 학습한다.	.155	.129	.253	.285	.582
19. 미리 계획을 세워 시험공부를 한다.	.262	.339	-.034	.269	.523
고유값	4.10	3.76	3.43	3.30	2.81
설명분산	12.43	11.41	10.40	10.01	8.51
누적분산	12.43	23.84	34.24	44.25	52.76
문항수	9	9	6	5	4

표 5. 요인별 신뢰도

학습 태도	요인명	초기 문항수	최종 문항수	Cronbach's α
요인 1	효과적인 내용정리	10	9	.84
요인 2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10	9	.85
요인 3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6	6	.78
요인 4	목표설정과 실행	9	5	.82
요인 5	학습계획	5	4	.77
전체		40	33	.94

표 6. 요인별 확인요인 분석 결과

구성 개념	GFI	AGFI	RMR	NFI	NNFI	CFI	χ ²	p
효과적인 내용정리	.952	.920	.030	.922	.908	.931	201.36	.00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964	.940	.025	.945	.939	.954	150.37	.00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963	.914	.035	.927	.888	.933	102.20	.00
목표설정과 실행	.947	.841	.049	.921	.847	.923	141.88	.00
학습계획	.994	.968	.015	.988	.969	.990	12.48	.00

[표 6]의 확인요인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에서 NNFI 값이 약간 벗어나고, 목표설정과 실행에서 NNFI, AGFI 값이 약간 벗어나긴 하였지만 모든 구성개념의 GFI, AGFI, RMR, NFI, NNFI, CFI의 권고 기준을 만족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는 수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단 χ^2 의 경우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났을지라도 다른 지표들이 만족스럽게 나타날 경우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표본수가 200이상으로 증가하면 χ^2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기각되기가 쉬우며, 또한 χ^2 검정은 관측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N=984) 검정대상 모형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상당히 있다면 χ^2 검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확인요인분석 결과 역시 모형이 비교적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5. 타당도분석

5.1 구인타당도

학습태도검사 내의 측정변인이 이론변인을 잘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 18.0에 의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학습전략 척도의 검증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0.9 이상), 조정적합도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0.9 이상), 표준적합도지수(normed fit index: NFI, 0.9이상), 비표준적합도지수(non-normed fit index: NFI, 0.9이상), 비교적합도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0.9이상), 원소 간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평균 제곱 잔차 제공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05 ~.08이하), χ^2 통계량, χ^2 에 대한 p-값(0.05이상)은 [표 7]에 나타내었다. 적합도 지수를 통해 학습태도검사 5개요인 구조가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표 7. 학습태도검사 적합도

구성개념	GFI	AGFI	RMR	NFI	NNFI	CFI	χ^2	p
학습태도	.996	.988	.004	.996	.997	.998	9.451	.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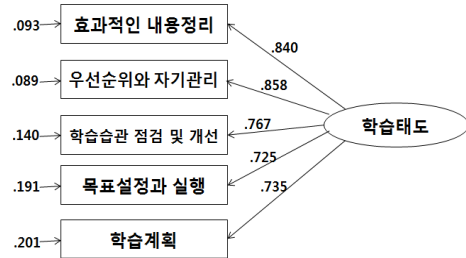


그림 1. 학습태도검사 모형

5.2 준거-관련 타당도(기준타당성)

다른 척도와의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5개의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내었다. 요인 별 상관계수는 .53~.72의 범주 내에 존재하였다.

표 8. 요인 간의 상관행렬

요인	1	2	3	4	5
1.효과적인 내용정리	1.00				
2.우선순위와 자기관리	.72**	1.00			
3.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64**	.68**	1.00		
4.목표설정과 실행	.62**	.62**	.53**	1.00	
5.학습계획	.62**	.62**	.56**	.55**	1.00

* p<.05 ** p<.01에서 유의함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태도 요인들은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각 요인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표 9]를 보면 응답자의 학습태도 요인 중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목표설정과 실행’>‘효과적인 내용정리’> ‘학습계획’ 순이며, 보통 이하의 부정적 응답 중에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이 가장 낮았고, 다음 ‘우선순위와 자기관리’였다.

표 9. 학습태도 요인들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효과적인 내용정리	984	1	5	3.18	.56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984	1	5	2.99	.58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984	1	5	2.66	.58
목표설정과 실행	984	1	5	3.35	.63
학습계획	984	1	5	3.10	.66

6.1 성별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성별 학습태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나타낸 [표 10]을 보면 ‘효과적인 내용정리’,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목표설정과 실행’ 요인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습계획’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성별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남녀별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t	p
효과적인내용정리	남성	333	3.23	.59	2.23*	.07
	여성	644	3.15	.54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남성	333	3.08	.62	3.70**	.00
	여성	644	2.93	.55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남성	333	2.78	.65	4.36**	.00
	여성	644	2.60	.53		
목표설정과 실행	남성	333	3.43	.68	2.97**	.00
	여성	644	3.30	.61		
학습계획	남성	333	3.09	.67	.01	.99
	여성	644	3.09	.66		

* p<.05 ** p<.01에서 유의함

6.2 학년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학년별 학습태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나타낸 [표 11]을 보면 모든 학습태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학년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학년별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t	p
효과적인내용정리	1학년	866	3.17	.57	1.62	.11
	2학년	118	3.26	.51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1학년	866	2.98	.59	1.06	.29
	2학년	118	3.04	.53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1학년	866	2.65	.59	1.71	.09
	2학년	118	2.73	.48		
목표설정과 실행	1학년	866	3.34	.64	1.86	.06
	2학년	118	3.45	.60		
학습계획	1학년	866	3.10	.67	.147	.88
	2학년	118	3.09	.60		

* p<.05 ** p<.01에서 유의함

6.3 결혼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응답자의 결혼여부에 따라 학습태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나타낸 [표 12]를 보면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만이 유의수준 $\alpha=.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학습태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결혼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결혼여부별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t	p
효과적인내용정리	기혼	36	3.22	.69	.47	.64
	미혼	941	3.17	.55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기혼	36	3.10	.74	1.28	.20
	미혼	941	2.98	.57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기혼	36	2.85	.60	2.04*	.04
	미혼	941	2.65	.58		
목표설정과 실행	기혼	36	3.55	.75	1.95	.05
	미혼	941	3.34	.63		
학습계획	기혼	36	3.21	.75	1.05	.29
	미혼	941	3.09	.66		

* p<.05 ** p<.01에서 유의함

6.4 연령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연령별 학습태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나타낸 [표 13]을 보면 연령에 따라 모든 학습태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학습태도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13. 연령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연령별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F	p
효과적인내용정리	10-20세	663	3.12	.53	7.67**	.00
	21-30세	293	3.27	.61		
	31-40세	16	3.52	.63		
	41-50세	4	3.53	.25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10-20세	663	2.90	.54	15.75**	.00
	21-30세	293	3.14	.63		
	31-40세	16	3.39	.66		
	41-50세	4	3.50	.38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10-20세	663	2.59	.55	11.20**	.00
	21-30세	293	2.79	.64		
	31-40세	16	2.99	.56		
	41-50세	4	3.21	.25		
목표설정과 실행	10-20세	663	3.28	.61	11.70**	.00
	21-30세	293	3.47	.67		
	31-40세	16	3.86	.62		
	41-50세	4	4.05	.30		
학습계획	10-20세	663	3.04	.65	5.20**	.00
	21-30세	293	3.18	.68		
	31-40세	16	3.44	.64		
	41-50세	4	3.56	.55		

* p<.05 ** p<.01에서 유의함

6.5 자기인식 학과적성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학과적성 상태에 따른 학습태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나타낸 [표 14]를 보면 학과적성에 따라 모든 학습태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과에 적성이 맞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학과에 적성이 맞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학습태도에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다.

표 14. 학과 적성에 따른 학습태도의 차이

학과 적성별 평균		N	평균	표준편차	F	p
효과적인내용정리	매우맞지않다	26	2.73	.57	44.25**	.00
	맞지않다	75	2.82	.61		
	보통	418	3.04	.51		
	맞는편이다	378	3.34	.49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매우맞지않다	26	2.43	.48	45.42**	.00
	맞지않다	75	2.62	.61		
	보통	418	2.85	.50		
	맞는편이다	378	3.16	.52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매우맞지않다	26	2.22	.56	35.71**	.00
	맞지않다	75	2.32	.61		
	보통	418	2.54	.52		
	맞는편이다	378	2.79	.52		
목표설정과 실행	매우맞지않다	26	2.92	.86	62.20**	.00
	맞지않다	75	2.88	.68		
	보통	418	3.16	.50		
	맞는편이다	378	3.55	.56		
학습계획	매우맞지않다	26	2.71	.64	28.59**	.00
	맞지않다	75	2.68	.62		
	보통	418	2.98	.63		
	맞는편이다	378	3.24	.62		
매우맞은편이다	80	3.51	.71			

* p<.05 ** p<.01에서 유의함

6.6 자기인식 학과적성과 학습태도의 상관

학과적성과 학습태도에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학과적성여부와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 15]에 따르면 자기평가 학과적성여부와 학습태도 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15. 학과 적성과 학습태도의 상관계수

	효과적인 내용정리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목표설정과 실행	학습 계획
학과에 대한적성	.387**	.394**	.353**	.437**	.318**

* p<.05 ** p<.01에서 유의함

V. 결론 및 고찰

학습태도는 일반적으로 적당한 강도를 지니고 있고, 방향에 있어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일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하는 감정이다. 또한 이러한 감정과 특정 대상간의 결합이 가능하며 그 대상에 대해 같은 감정을 일관성 있게 경험할 수 있다[25]. 또한 학교 및 학습에 대한 태도는 어떤 구체적인 교과 혹은 학습과제에 대한 흥미보다 훨씬 일반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는 한 과목의 학습과제에 일반화 되지만 그 외의 다른 과목까지는 일반화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태도는 학교, 교과목, 교사, 학생들에게 일반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습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학습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학습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학습태도는 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학습태도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특성이며, 학습이라는 특정 사태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반응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태도는 학습에 관한 개인의 긍정 혹은 부정적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며,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인지·정서·행동적 반응 경향성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 따라서 학습태도측정을 통한 학습전략수립은 전문대학생의 학습효율성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습태도 검사를 개발하고자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전문대학생 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33문항으로 구성된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33문항으로 구성된 ‘학습태도’는

다섯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요인 1은 효과적인 내용정리, 요인2는 우선순위와 자기관리, 요인 3은 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 요인 4는 목표설정과 실행, 요인 5는 학습계획이라고 명명하였다. ‘학습태도’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요인 1(효과적인 내용정리)은 .84, 요인 2(우선순위와 자기관리)는 .85, 요인 3(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은 .78, 요인 4(목표설정과 실행)는 .82, 요인 5(학습계획)는 .77로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둘째, ‘학습태도’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인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기준타당성)를 확인하였다. 먼저 ‘학습태도’의 다섯 요인 구조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18.0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에 대한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 각 척도의 다섯 요인 구조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학습태도’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기준타당성)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학습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기평가 학과적성과도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나 학과 적성에 강한 긍정을 보인 학생일수록 학습태도의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학과 적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일수록 학습태도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학습태도’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일반적 특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학습태도’의 다섯요인 점수를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별, 결혼 여부, 연령, 자기인식 학과적성별 평균의 차이검증 결과, 요인 1(효과적인 내용정리)과 요인 2(우선순위와 자기관리), 요인 4(목표설정과 실행)는 성별, 연령별, 학과적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인 3(학습습관 점검 및 개선)는 성별, 결혼여부, 연령별, 학과 적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인 5(학습계획)는 연령별, 학과적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습태도 3개의 하위 요인(요인1, 2, 4)이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아갈수록, 학과적성에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것이다. 또 요인 3은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연령이 높아갈수록, 학과적성에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요인 5는 연령이 높아갈수록, 학과적성에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전문대학생들의 학습태도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며, 대상에 따른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별화된 교수학습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습태도 검사척도는 전문대학생의 학습태도의 기초와 개인적 특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습태도를 점검하고 학습기술을 향상시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전략을 조언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단지 대학생을 위한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터에 학습태도검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에서부터 시작된 것에 불과하므로,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문항 수도 적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이[27]는 비록 대학이 지식 전달 기능의 중심지라도 기존지식의 전수 뿐 아니라 연구기능을 연계시켜

새로운 지식개발에 이르려면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력과 독창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차후에는 학습태도의 하위 영역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이[28]의 연구에서 대학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세부전공별로 문화 콘텐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니 향후 교육사업이나 학습법 관련 연구에서는 이 분야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29]등은 모바일 매체의 등장으로 전자책의 뷰어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향상되어 종이책으로 표현할 수 없던 기능의 추가로 전자책 산업이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한 잠재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태도 검사 뿐 아니라 학습목표와 학습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고, 학습기술의 향상과 감소에 대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기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대학생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 정신-신체의 능력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

인적인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비단 전문대학생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이 사회진출과 취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전인교육의 가치를 이야기함이 진부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가 퇴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면 향후 전인적인 교육에 바탕을 둔 학습방법을 찾아내어 적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게 교육일선의 교수자들 뿐 아니라, 산업체의 교육담당자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박성미, “전문대학생을 위한 학습전략 진단 도구의 개발”,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1권, 제1호, p.16, 2009.

[2] 이길순, “전문대학생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한 네비게이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집, 제2010-19, pp.13-32, 2010.

[3] 김은영, *대학생 동기조절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 변영계, 강태용, “대학생들의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측정을 위한 연구”, 교육연구, 제13권, pp.13-37, 2003.

[5] 이은화, 강한나, “대학생들의 학습기술 활용실태 및 학습기술 훈련에 대한 요구조사”, 아시아 교육연구, 제7권, 제4호, p.282, 2006.

[6] Gustafson, Christina, *Classrom interaction : a study of pedagogical roles in the teaching proces*, Gotab., 1979.

[7] 변호승, 서정희, 류지현, 최선영, 정문성, 방정숙,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CR 2008-13, 2008.

[8] 김기석, *학습습관 검사해설 및 시행요강*, 코리안 테스트 센터, 1980.

[9] 김숙형, *자기조절학습이 학위성취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0] 고봉익, *습관-66일의 기적*, 새양뿔, pp.10-15, 2010.

[11] 조용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학습전략*, 학지사, pp.75-163, 2009.

[12] 김윤희, *ADHD 청소년을 위한 목표추구성 중심의 학습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 이보라, *학부모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학습코칭에 관한 사례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4] 김경화, *자기조정 학습전략 훈련의 효과분석*,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5] 이병훈,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학원부터 그만둬라*, 한스미디어, pp.27-253, 2005.

[16] 권향순,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습양식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7] 이희경, *코칭 입문*, 교보문고, pp.33-42, 2005.

[18] 김현근, *현근이의 자기주도학습법*, 예담, p.30, 2007.

[19] 박정호, *초등학생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스토리텔링기반 교육모형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3-24, 2008.

[20] 백수진, *초등학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학습동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4, 2010.

[21] 전도근, *자기주도적 공부습관을 길러 주는 학습코칭*, 학지사, pp.52-114, 2011.

[22] 토니 부잔, *생각의 지도 위에서 길을 찾다*, 부잔코리아, pp.148-196, 2005.

[23] 정형권, *학습코치를 위한 정형권의 학습코칭 다이어리*, 비즈콜라, pp.52-77, 2011.

[24] 김아영, *학업동기 검사 - 사용자 매뉴얼*, 학지사, pp.9-45, 2003.

[25] T. H. Anderson, “Study skills & learning strategies,” In HF O’Neil, & CD Spielberger (Eds.), *Cognitive & affective learning strategies*, pp.7-97, Academic Pres, 1979.

- [26] B. S. Blom,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ing*, McGraw-Hill, 1976.
- [27] 이병민, “대학에서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문화 콘텐츠 교육 개선방안 탐색”,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4권, 제13호, pp.481-496, 2013.
- [28] 이미나, 이화선, 최인수, “대학생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전공계열별 인식 비교”, 교육과정연구, 제30권, 제3호, pp.353-376, 2012.
- [29] 윤성욱, 김희선, 김현기, “전자책(e-Book) 인터페이스 사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4권, 제13호, pp.137-144, 2013.

저 자 소 개

김 정 선(Jeong-Su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석사)
- 2014년 2월 :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 성격검사, 학습지도

이 형 수(Hyoung-Soo Lee)

정회원



- 2003년 8월 : 고려대학교 운동과학과(이학석사)
 - 2008년 8월 : 단국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 2010년 12월 ~ 현재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 <관심분야> : 교육과정, 치료교육